

2010년 여름호

초년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부설기관
- 대구쪽방상담소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만평주민도서관
 - 사)경북이주민센터

053)356-0465
 053)356-3494~5
 053)356-0463~4
 053)356-0468
 054)444-8861~2

소중한 인연이 풍기는 향기

일평생 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같이 하지 못하는 가족 친지와 사랑으로 보살펴 준 옛 은사, 어린 시절의 동무, 또한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까지 내 옷깃을 스쳐간 사람이 문득 떠오른다. 가끔씩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의 체취와 향기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생생한 것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고마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닌가 싶다. 싫었던 기억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잊어져 갈 수 있는 반면에 좋은 기억은 참으로 오랫동안 남는 것 같다.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보고 싶고, 그 사람이 베풀었던 호의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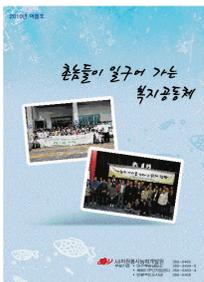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나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상대방은 모자라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에 대한 기억도 사실 그 사람이 준 것 때문에 고마웠다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 나의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마디 더 해주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같이 있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가 항상 고마웠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듯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물질적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되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주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소중했던 사람을 기억하듯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중한 인연은 더 함께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피천득의 「인연」에서는 아사코와 '세 번재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인연은 옛 추억의 인연이 아니라 세 번, 아니 삼십 번을 더 만나도 좋을 그런 인연이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나 혹은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훗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일이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인연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다. 나도 가끔은 고마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서로 서로가 고마움으로 엮인, 그런 사연이 많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노래와 향기를 좋은 인연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그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게 불러주는 노래와 서로에게 풍기는 향기를 좋은 인연으로 간직하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많이 배려하고, 많이 나누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표이사 김 선



● 표지이야기 ●
아카데미와 3기 결연가족 문화탐방에서 함께한 사진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공존'과 '소통' 혹은 '함께함'이라는 키워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는 분들과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행복합니다.

발행일 2010년 7월
발행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표이사 김 선
편집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3가 1371-6(우703-851)
Tel. 053)356-0465 Fax. 053)356-3496
메일 vongsas@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vongsas.org

2010년 여름호 **촌놈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02 여는 글 소중한 인연이 풍기는 향기 | 김 선

함께한 나날들

04 법인의 지난 그림들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06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대구쪽방상담소

09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 대구주거복지센터

10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12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만평주민도서관

14 경북이주민센터의 지난 그림들 | 경북이주민센터

개발원이 만난 사람들

15 두근두근 첫 만남 | 왕화리, 박남건

16 2010 후원의 밤 스케치 | 후원의 밤에 모인 사람들

18 인연, 우연이 아니다. | 전종민

19 인연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선물 | 전상우

20 다가올 인연을 기다립니다. | 박문수



심포

21 시 한편, 생각 둘 '잠 못 이루는 사람들'

회원동정

22 손잡은 회원소개

23 회원님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함께해요

24 일정소개

살림살이

25 법인 & 만평주민도서관 후원자 및 결산

26 대구쪽방상담소 후원자 및 결산

27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자 및 결산

사랑을 나눠주세요.

28 사랑을 나눠 주세요.



법인의 지난 그림들



1. 2010년 4월 2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3층 만평주민 도서관에서 30여명의 회원, 봉사자,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벗들과 함께하는 회원만남의 날'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회원의 기타연주에 맞춰 노래도 하고 시낭송도 듣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2. 2010년 4월 6일 : 계명%사랑나누기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계명대학교 교직원과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님을 모시고 강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직원에게는 1%나눔을 부끄러워하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학생들에게는 생명이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영혼에 속해 있다는 말씀과 함께 한 발짝만 바로 걸으며 살아가자고 여든이 넘는 연세에 18세 청년처럼 열강 하셨습니다.



3. 2010년 4월 6일 :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님을 모시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 운영위원, 회원, 봉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아카데미 기초강연을 가졌습니다.

"나눔은 내가 원해서 나누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평생을 소유하는 것 없이 나누면서 살아오신 이윤구 박사의 강연이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의미 있게 자리했길 바랍니다.



4. 2010년 4월 24일 / 6월 12일 : 회원, 회원가족과 함께 '그 남자, 그 여자', '꽃마차는 달려간다'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사무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번개 문화공연관람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을 실현하는 벗들과 함께하는 회원만남의 날

5. 2010년 5월 1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설립기념일에 팔공산 올레길도 걷고, 볼링 단합대회도 하며 14돌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더 큰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6. 2010년 5월 25일 : 7명의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속참찬우 식당에서 제 4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관별 사업보고와 추후 행사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7. 2010년 5월 27일 : 하마호프에서 쪽방거주인 주거상향과 새터민 공부방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표현해주시는 너그러움과 손 잡아주시는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2010년 6월 4일 : 200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인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 결연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특히, 12쌍의 3기 결연가족 결연을 축하하기 위해 1기·2기 결연가족이 함께하여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9. 2010년 6월 13일 : 제3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2010 컬러풀 대구다문화 축제'에 참여하여 결연사업 안내, 목걸이 만들기 체험, 식혜시음 등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결연사업에 참여하는 식구들과 더불어 많은 다문화가족을 만나서 즐거웠고 컬러풀 다문화 축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0. 2010년 6월 26일 :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에 참여하는 결연가족과 함께 안동으로 문화탐방 다녀왔습니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교문화박물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을 답사하고 함께 공동체 놀이를 즐기는 등 친구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1. 2010년 3월 17일

쪽방 거주인들과 함께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칼솜씨로 재료를 썰고, 반찬을 만들면서 재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웃의 쪽방거주인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어 뿌듯함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 2010년 4월 2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새오름고용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롭게 올라서기라는 “새오름”의 의미처럼 쪽방거주인들이 취업이라는 문턱에 한 걸음 새롭게 올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3. 2010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성(민간제도개선과)사무관이 전국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구지역 주거빈곤 계층의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해 대구쪽방상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주거 빈곤 계층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 2010년 4월 28일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에 쪽방거주인 13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 2010년 4월 29일

주거복지센터 개소관련해서 주거권네트워크 모임을 대구쪽방상담소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거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6. 2010년 5월 7일

쪽방거주인의 자조모임 조직 및 지역자원체계구축을 위한 고민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공유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의미를 살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 2010년 5월 13일

서울에서 제3차 전국홈리스연대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총 11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전홍연 교육실행



11 장민철 쪽방상담소 사무국장
 "참고로, 쪽방에 살아가는 노숙인, 그외 피시명이나 고시원 등과
 같이 취약계층과 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



12



14



15

계획, 홈리스단체 지역별 간담회 개최건, 홈리스 종사자 인권교육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며, 앞으로 전국홈리스연대를 통해 현안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여 강화된 연대의 모습과 홈리스 정책 반영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8. 2010년 5월 14일

쪽방상담소 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기정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의 운영위원회 분들이 참석하여 대구주거복지센터 선정관련, 후원의 밤 행사관련 등으로 중점적인 논의와 공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쪽방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 격려해 주시는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2010년 5월 17일

장민철 사무국장이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쪽방과 관련해 “대구지역 빈곤의 실태 - Homeless(노숙인 및 쪽방거주인)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특강을 듣고 쪽방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심을 부

탁드리며, 더 많은 학생들이 쪽방의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2010년 5월 20일

“계명대학 1% 나눔 활동”과 연계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원룸으로 옮기시는 분들께 이사지원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짐이라도 이사라는 건 큰 부담이 되는데,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짐을 옮기고 청소도 하고 시골벽적인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이사의 즐거움을 주신 든든한 계명대학교 학생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1. 2010년 5월 22일

대구MBC “열린TV 희망세상”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쪽방촌 우리 이웃들”이란 제목으로 쪽방 거주인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절망만 있을 것 같은 쪽방에서도 희망을 찾아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2010년 5월 27일

“쪽방거주인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16



17



18

밤” 행사를 개최하였고 대구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 백년가약, M병원에서 임대보증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쪽방거주인들이 주거상향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13. 2010년 5월 31일

대구평화방송 ‘행복한 세상 931, 이슈와 오늘’ 후원의 밤 관련, 쪽방매입인데, 주거복지센터, 새오름고용지원센터 관련 장민철 사무국장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쪽방거주민등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 2010년 6월 9일

와이즈맨 새대구클럽 메넛회에서 성금을 모아 쪽방에 생활하시는 이들을 위해 쌀(백미20Kg*25포)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쌀은 매주 동대구역 거리무료급식용, 노숙위기에 계신 분,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작은 정성이 다른이에게는 아주 큰 희망으로 찾아옵니다. 쪽방거주민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기 기대해 봅니다.

15. 2010년 6월 11일~12일

팔공 인터볼고 호텔에서 있었던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구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6. 2010년 6월 17~18일 (24~25일)

17~18일(1차 교육) 3년 이하 종사자 교육, 24~25일(2차 교육)3년 이상의 종사자들이 충주 경영건설연수원에서 “홈리스연대 인권위 실무자 인권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홈리스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권에 대하여 개념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7. 2010년 6월 22일

공동작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희망근로 선생님들, 직원들과 함께 인각사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슬기도 잡고, 고기도 구워먹고, 시원한 그늘막 아래서 옷놀이도 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루의 여유로움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18. 2010년 6월 23일

범물동 박경희 후원자님께서 구제이류 50여벌과 치약, 양말, 스카프 등의 생필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지 않아 이렇게나마 감사함을 전합니다.

19. 2010년 4월~6월

4월~6월까지 반빈곤네트워크 활동으로는 반빈곤네트워크 전체회의, 건강보험 체납 강연회 2회, 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육, 건강보험 체납관련 T/F 2회, 빈곤활동, 노동절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공유하였습니다.

20. 2010 4월~6월

4월~6월까지 서구지역복지사회협의회 활동으로는 실무회의 간담회, 지역육구조사, 서구지역복지 워크샵 준비 및 실무분과 논의, 서구지역복지계획공청회, 대표협의회 심의에 참석하여 쪽방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역의 복지단체와 연계해야 할 부분을 공유하였습니다.

집·희망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1. 전국주거복지센터 실무자교육

전국주거복지센터실무자 교육이 5월27일~2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web D.B교육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대구지역 민·관·공 주거복지 간담회

6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주거복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시설 담당자, 각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센터의 사업 소개와 주거복지의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강의 등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는?

민간 영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과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구지역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긴급임대료지원/소액보증금대출 등) 및 상담활동을 하는 전문 주거복지서비스 수행 기관으로 2009년 결성된 '주거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는 대구쪽방상담소, 대구홈리스지원센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 대구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주거복지센터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1. 4월~6월 : 137~139기 북한이주민들이 하나원을 퇴소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대구로 오셨고 3주간의 하나센터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응교육은 끝났지만 하나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시간 날 때 방문하셔서 자주 얼굴 보아요. ^^ 모두들 대구에서 잘 정착하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2. 137기분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날 하나센터로 호주대사관의 Jennifer Mason과 영국대사관의 Adrian Jones가 방문을 하여 대구에 정착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137기 하나센터 수료식날 미국대사관의 Thomas Underwood씨가 명예교장으로 참석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3. 4월 9일 : 고경빈 전 하나원 원장님과 함께 대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 4월 16일 : 북한이주민 아동을 위한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발개돌이는 북한말로 개구쟁이라는 뜻입니다).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은 대구지역에 북한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월, 수, 금, 토요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과, 문화기행 야외활동으로 다양한 곳을 체험하고, 로봇수업으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출발선에 서있는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 앞으로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요~



5. 지난 4월 30일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서울 신촌, 5월 27일에는 하마호프에서 '새터민 공부방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일일호프가 있었습니다. 후원의 밤을 통해 마련된 자원과 후원금은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 예비 대학생 공부방, 대학생 공부방에 쓰이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마음이 모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6. 4월~6월 :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부 민간협력 사업 디딤돌Ⅱ 프로그램(3, 4, 5기)을 진행하였습니다. 44명 수료, 알선 86건, 취업 23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서공단, 경산, 다산, 청도 등의 기관을 방문하였고, 대구지역의 직업훈련학교 등 북한이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디딤돌 교육을 참가하신 북한이주민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일 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7. 5월 2일 :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축제 한마당 행사"에 북한이주민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변호사의 강의도 듣고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도 관람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의 야외활동이라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모일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계기로 아동,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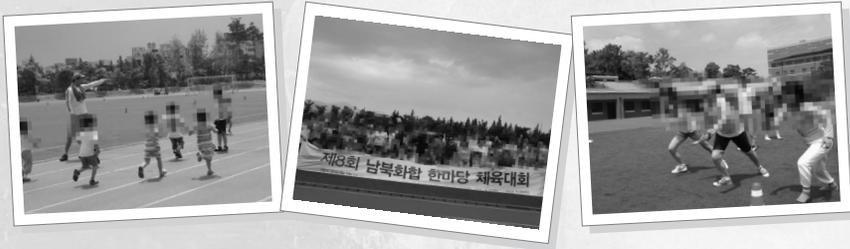


8. 6월 5일 : 북한이주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의 Gilbert Burnham 교수의 정신건강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하나센터를 소개하고 남한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와 Gilbert Burnham 교수님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체계에 대해 토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 6월 5일 :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남북화합한마당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남북화합한마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원봉사자와 북한이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더 뜻 깊었습니다. 축구, 배구, 사탕 줍기, 계주 등 서로가 함께 달리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면서 삶의 힘겨움을 벗어 두고 가족적인 분위기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태양 보다 더 강렬했던 우리의 열기에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0. 6월 13일 : 북한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남북화합한마당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달리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면서 삶의 힘겨움을 벗어두고 가족적인 분위기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1. 6월 13일 : 2010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에서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북한말 알아 맞추기를 하고 상품으로 북한이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예쁜 핸드폰 고리를 나누어 주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사서선생님 소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파견된 순회사서 김남숙입니다. 저는 5월에서 12월까지 매주화요일 만평주민도서관에서 근무합니다. 도서 선정, 도서 정리, 실무업무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문화가 창조되고 유통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거점 공공도서관과 적극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문화가 창조되고 유통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거점 공공도서관과 적극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독서논술교실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서 독서논술교실이 쪽~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은 친구입니다. 함께 놓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 도서관에서 자라는 아이들 모습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원하는 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책뿐인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꿈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김남숙 사서선생님과 함께 독서퀴즈 풀기



진웅이는 엄마랑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요~



나의 그림 실력 뽐내볼까?



팔찌도 만들고 무지개도 만들어요~!!

▶ 기쁜 소식 함께 나눠요.

〈보리출판사 - 나도 화가가 될래요.〉에 우리 도서관 친구들이 공모하여 책 선물을 받았어요.



〈세계절출판사 - 내가 쓰는 역사일기〉에 우리 도서관 친구들이 개인 역사일기와 협동작품 만평마을 만들기 모습 사진을 제출해서 특별상인 재치상을 수상했습니다.



곧 있으면 역사일기 6권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책 한 권이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고 그 것을 통해 얻은 선물에 많이 기뻐합니다.

▶ 여름방학학교

더운 여름, 시~~원한 만평주민도서관에서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자 독서논술, 독서퀴즈, 역사교실, 민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 10~15명 정도로 꾸려 책과 음악과 놀면서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며 주민도서관인 만큼, 자원봉사자와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름방학학교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독서캠프

뚜벅이 역사답사 팀과 연계하여 7월 23일 ~ 25일 변산반도로의 독서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책 읽기와 발표시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만평주민도서관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서관 책 & 책장후원

만평주민도서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도서관 책장은 날이 새로운 책들로 가득합니다. 좋은 책을 나눠 읽기자 하는 이웃들의 마음이 넘쳐 책장도 넘치고 있습니다. 책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책장을 후원해주신 조경래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집합니다.

▶ 피아노 선생님 모집

그 동안 수고해주신 양선현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아노교실이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교실을 꾸려나가 주실 멋진 피아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원 활동가

여름방학동안 순수한 만평주민도서관 아이들 속에 젖어서 보내고픈 대학생 자원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꿈도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만평주민도서관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분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평주민도서관 카페에 놀러오세요. 다음카페 검색창에서 만평주민도서관을 검색하세요.
<http://cafe.daum.net/manpyunglib>

경북이주민센터의 지난 그림들

경북이주민센터



1. 하나센터 교육

매달 전입해 오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적응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교육은 구미에서, 5월, 6월 교육은 안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경북지역이라는 광범위한 특성 때문에 교육생들이 안동에서 구미까지 찾아오기 힘들어 교육을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지역적응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교육을 위해 매일 직원들이 직접 안동까지 통학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6월 교육에는 구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명이 안동에서의 교육을 아무런 불평 없이 매일 통학하시는 불편과 수고를 참아주시고, 수료를 하게 되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 노동부 위탁 취업교육

노동부 위탁 2010년도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아웃소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기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구미에서 4일간 진행하여 5명이 수료하였고, 2기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안동에서 4일간 진행하여 4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센터 취업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습과 현장견학 위주로의 노동부 교육이 이루어 졌고, 교육생들이 큰 만족을 하였습니다.



3. 제2회 경북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운동회

지난 5월 21일 금요일에 경상북도 경산에 소재한 대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2회 경북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운동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경북지역에서 두 번째 운동회이며 이번 운동회는 “경북 서북부 하나센터”와 “경북 동부 하나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했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 서북부 지역 북한이탈주민들과 경북 동부지역 북한이탈주민들 150여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50여명 등 200여명이 모여 축구, 줄다리기, 계주, 노래자랑 등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운동회에 참석하여 함께 수고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4. 차량 인수

축하해 주세요^^ “지엠대우한마음재단”에서 지난 6월 1일에 인천 대우 부평공장에서 차량기증식이 진행되었고, 저희 센터에서 2010년도 차량기증사업에 선정되어 “마티즈” 차량을 기증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에 차량이 없어서 이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차량 인수로 인해 그 많은 불편함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근두근 첫 만남”

처음의 설레는 만남과 앞으로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글로 표현한
 [왕화리 · 안영배 · 안서현 - 박남건 · 김대일 · 김도윤] 결연가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문화 가족 - 안영배



너무나 마음씨 고운 도윤이 가족과 결연 가족이 되게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아직도 좀 어색함이 없지 않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남이 아닌 한 가족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할게요. 결연가족 행사에 고생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내국인 가정 - 박남건



서현이의 밝은 성격과 통화로만 듣던 서현 엄마의 모습, 자상하게만 보이고 가족을 잘 챙기시는 서현 아버지 또한 보는 제 맘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가정과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 돌아오는 발걸음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첫 느낌, 서현이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로 표현해 보았어요.^^

- 안** : 안녕하세요.. 서현이네 가족과의 첫 느낌은요 ~~~
- 서** : 서현이의 밝고 쿨 한 모습에서 아빠, 엄마의 친절함과 따뜻함이 느껴져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 현** : 현재의 우리 결연가족이 어색.. 어색을 달리지만 오늘부로 끝~~~~



개발원이 만난 사람들



찬찬히 읽어 보고 오세요~!



두그두그~~ 잘생긴 두 남자의 등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0 후원의 밤

5월 27일 '쪽방거주인 원룸입주 보증금 마련과 새터민 공부방기금 마련'을 위한 2010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신 분들께 또 한 번 감동했고 '인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얽히고 얽힌 인연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순간



동창회도 하고, 후원도 하고
1석 2조랍니다.



표현해주시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나 오년에 기타리스트~!!

스케치

을 건뎌내면 '인연'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살아감의 이유를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인연 맺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지역사회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잡은 손 하늘 위로 올려 흔들어 보아요~



나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18세 청년입니다.



노래실력도 뽐내요~



후원의 밤의 하이라이트 후원금 전달식



우리는 카운터 걸~



전종민

인연, 우연이 아니다.

처음에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북한이주민지원센터라는 곳을 학교에서 듣게 되었고 이곳이 무엇을 하는지, 어딜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문을 두들긴 것이 이곳과 나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 입사하여 소위 사회인들이 말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비로소 내 자신이 일을 하고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시기가 온 것이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부족한 내 자신에게 화도 났고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센터의 선생님들은 옆에서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내가 생각하는 딱딱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아닌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로 이루어져 어쩌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지 놀라기도 했었다.

현재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직원, 북한이탈주민, 법인식구, 쪽방, 관련기관 분 등 인연을 맺고 함께한 식구를 두고 나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난 이게 인연의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기관은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절대로 인연을 끊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같이 움직여야 인연이 유지되는 것인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함께한다면 그것 또한 함께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나중에 운영위원이 될지 누가 아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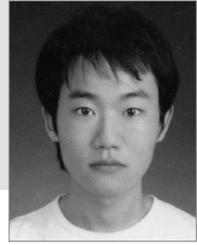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보낸 1년 4개월의 짧은 경험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따뜻함을 품고 있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식구와 이 기관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큰 디딤돌이 된 것 같다.

나의 첫 사회생활이 늘 들어오던 직장생활의 모습, 선후임의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 같은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모든 직원의 의사를 공평하게 수렴하는 기관에서 경험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루어가는 진실한 기관으로 기억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쪽방상담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떠난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만남으로 살아가지만 만나고 싶은 만남과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내 뜻과 같지 않음을 배울 수 있는데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면서도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하는 가 봅니다. - ‘인연’에 대한 나의 짧은 생각」



전상우
대구쪽방상담소 자원봉사자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 별 탈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너스 받아 오시는 날에는 가족끼리 탕수육에 자장면 시켜먹고 1년에 한번 있는 생일에 나이키신발사달라고 졸라 어렵사리 받아내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풍족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가족끼리 작은 기쁨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이 우리 집 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는 불우이웃이나 장애인들의 사연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 흘러들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쪽방상담소'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2009년 4월, 학교 선배와 함께 방문한 쪽방상담소에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쪽방이란 이름과 그동안의 봉사와 다른 활동은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좁은 쪽방과 아저씨들은 기존에 자원봉사에서 볼 수 있었던 양로원이나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쪽방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1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참 많은 쪽방 아저씨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힘들어도 빈병, 폐지수거 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당신도 생활하기 힘드신데 같이 사시는 다른 분 걱정해주시며 사람 사는 정을 품고 지내시는 분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쪽방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TV에서나 보고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워서 생활하시고 인연을 맺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쪽방상담소와 쪽방 아저씨와의 인연은 저에게 세상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같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라면 한 박스가 뭐 그리 큰 힘이 될까 생각했는데 라면 한 박스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아저씨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재가방문이 저에게 지난 일주일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다가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시는 아저씨들을 뵈 때면 지난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폐지나 공병 수집도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저 역시도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쪽방상담소와의 인연은 저에게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 쪽방 아저씨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저의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려 주었습니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편협한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넓은 세상을 모두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살하면서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시작한 자원봉사는 부족한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쪽방상담소 식구들은 물론 쪽방 아저씨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있는 자원봉사로 남지 않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돌러보고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과 선물을 받아가지만 쪽방상담소 식구들과 쪽방 아저씨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지난 1년이란 자원봉사의 인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굳이 쪽방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으로 곁에 있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소중한 인연 맺어 주신 쪽방식구들과 쪽방 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



구름 같은 존재,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우리네 인생이 뜬구름과 같음을 나이가 들으로써 느껴집니다.

뜬구름...구름...공기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구름은 형체화입니다. 그 크기가 다 다르지만, 모여 졌을 때에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보잘 것 없지만,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뭉쳤을 때에는 가히 거대한 구름의 존재가 되겠지요.

수많은 사람들... 다 제 각각의 사상과 굳어진 시각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현세를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특권층이 되기도 할 것이며, 상류층려 芡荷 . (노숙, 쪽방, 피시방, 만화방 등) 많은 층들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연에 의해 만나고 헤어짐이 수없이 반복 되어 갑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또 인연을 가식적으로 행하였다면, 그 당사자는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이란 것은 소중한고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울에 '해보자 모임(아래소개 참고)'이 결성 되었고, 이 해보자 모임에서 3억5천 만원 이란 거금을 모았으며, 더욱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 소식이 고무 받아 대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인연이 아닐까요? 인연이란 소리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인연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지 어찌 할 것 인지는 해당 당사자의 몫이며, 결과 또한 해당 당사자의 몫 입니다.

우리 인연에 대해서 한번쯤은 깊게 생각을 가져 봅시다. 뜻 깊은 귀중한 인연을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오판과 좁은 생각으로 날린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하며 다가올 인연에 좀 더 나은 발전과 소중한 만남을 가져 보는 건 어떨지 생각하여 봅시다.

<해보자 모임 소개>

■ 어떤 모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무엇인가 더 나은 생활을 모색하고 실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위와 격려를 함께 나누고 작은 힘이라도 합쳐서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뜻

■ 누구와 함께?

거리생활중인 분들, '노가다' 일 하면서 사우나, PC방, 만화방, 여인숙 같은 곳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분, 고시원이나 쪽방생활 하는 분 등 주거가 불안정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연대하는 모임"

「이 글은 쪽방에 거주하시다가 얼마 전 매입임대사업으로 원룸에 입주하신 분의 글입니다. 박문수씨의 말처럼 인연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문수씨는 지금,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뭔가를 해보자는 당사자 모임을 결성 중입니다.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사회의 편견과 맞서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모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로렌스 티르노

새벽 두시, 세시, 또는 네 시가 넘도록
 잠 못 이루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간다면,
 만일 백 명, 천 명,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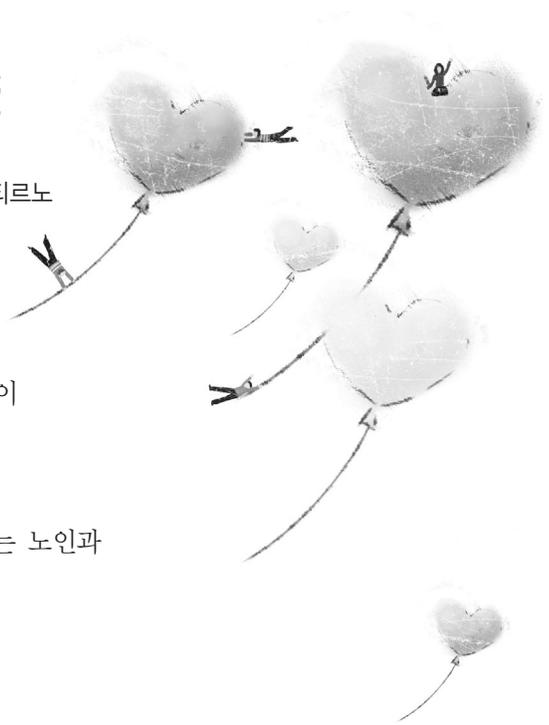
예를 들어 잠자다가 죽을까봐 잠들지 못하는 노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따로 연애하는 남편
 성적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과
 생활비가 걱정되는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남자와
 사랑에 운이 없는 여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
 만일 그들 모두가 하나의 물결처럼
 자신들의 집을 나온다면,
 달빛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고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면,

그렇게 되면
 인류는 더 살기 힘들어질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까.
 사람들은 더 멋진 삶을 살게 될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일 그들 모두가 공원으로 와서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면
 태양이 다른 날보다 더 찬란해 보일까.
 또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껴안을까.

「상처 없는 사람도, 사연 하나
 짚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
 다.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만
 의 아픔인양 가시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
 해봅니다.

상처도, 아픔도, 사랑도, 기쁨
 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껴
 안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
 다. 그것이 '인연' 아닐까요?」





꼭지소개 : 2010년 여름호부터 회원동정 꼭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이사, 운영위원, 직원 모두 회원이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가슴 따뜻한 회원들 덕분에 14년 간 지역 안에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회원님들과 함께한 시간과 활동을 남기는 일에 소홀했던 것 같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회원동정 꼭지를 통해서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을 소개하고 각자 개인적인 부분이라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단체와 맺은 인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과 회원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인연 맺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손잡은 회원을 소개합니다.

강동일 곽동주 김경녀 김경림 김미숙 김성일 김수경 김신지 김정현 김지연 김찬구 김현정
원윤경 유상희 윤한웅 이경희 이병술 이승우 이은애 이혁주 정수영 정연미 정정원 정효미
조현숙 지속희 채병준 최우영 편남희 한경희 홍예숙 홍은숙 금성숯불갈비



지속희 :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첫 느낌은 따뜻함과 더불어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란 느낌이 좋았구요. 개발원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편남희 : '무지개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결연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동행'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인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걸음으로도 오래도록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이병술 : 고령에 살고 있고요, 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를 통해 노숙인과 빈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주변 쪽방 거주인을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영호 : 청주본가 대표, 나라애드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신 제영호 신임이사님은 지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이사로 활동해 오심은 물론 동창생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많은 역할 기대합니다.



정무호 : 정무호 신임이사님은 전 월드비전 행정국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월드비전 경기복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복지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어른인 만큼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회원님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홍창영 - 지속희 가족회원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 2기내국인가족으로 참여한 가족이자 법인과 부설기관의 든든한 회원이신 홍창영-지속희 가족회원이 6월 18일 평화방송 '행복한 세상 931 - 금요일에 만나는 아름다운 당신'에 초대되어 인터뷰하셨습니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와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의 인연과 결연 맺은 가족과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김영달 회원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이사장님이시자 경북이주민센터 이사장님이신 김영달 회원님이 대구일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구일보가 지역 신문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정옥 회원 환갑

전정옥 회원이 본인의 환갑을 기념하여 특별후원금 기부하셨습니다. 환갑잔치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을 위한 값진 선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역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정옥 회원님의 값진 마음을 전해 받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생일, 돌잔치, 결혼기념일 등에 근사한 곳에서 식사 한번 할 돈을 보다 값지게 쓰고 싶고 의미 있는 날도 만들고 싶다면,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친친더하기(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하나 된 기쁨 나누기)운동에 함께한 회원

친친더하기 운동은 후원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자는 운동입니다. 이 활동의 시작과 함께 홍창영, 하상만, 유태영, 이병술 회원이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할 새로운 회원과 손잡고 오셨습니다.

하나 둘 마음 따뜻한 분들이 모여 우리 모두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일/정/소/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일정

- ▷ 8월 6일 ~ 8월 7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직원연수
장소: 군위군 '티롤하우스'
- ▷ 9월 중 : 1,2,3기 결연사업 참여가족 대상 '무지개가족 운동회'
- ▷ 9월중 : 수익사업 농산물판매
- ▷ 10월 중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가족캠프

대구쪽방상담소 일정

- ▷ 7월 10일 ~ 7월 11일 : 쪽방직원연수
- ▷ 7월 18일 ~ 7월 21일 : 빈곤활동체험
- ▷ 7월 23일 ~ 7월 24일 : 자조모임집단고민나누기 캠프
장소: 감포 오류해수욕장 '어부팬션'
- ▷ 7월 29일 ~ 7월 31일 :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 워크숍
장소: 대구 팔공산 온천관광호텔
- ▷ 8월중 : 폭염나들이
- ▷ 9월 추석위문품 전달
- ▷ 10월 중 자원활동가 교육
- ▷ 11월 동절기 나눔 캠페인

- ▷ 연중 : 프로그램신청사업(자조모임조직 및 지역자원체계 구축사업), 매입임대 주택사업, 재가방문사업, 무료급식 사업, 밑찬한 지원 사업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일정

- ▷ 7월 3일 ~ 7월 16일 : 하나센터 17기 교육
- ▷ 7월 9일 ~ 7월 10일 : '신나는 캠퍼스, 당당한 사회인' 산은캠프 동해 망상해수욕장
- ▷ 7월 29일 : 141기 북한이탈주민 마중
- ▷ 7월 31일 ~ 8월 13일 : 하나센터 18기 교육
- ▷ 8월 26일 : 142기 북한이탈주민 마중
- ▷ 8월 28일 ~ 9월 10일 : 하나센터 19기 교육
- ▷ 매주 월, 수, 토 : 국어, 수학, 국사, 영어 공부방 진행
- ▷ 매주 월요일 : 공부방 강사, 직원 영어 회화 공부방 진행
-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 NKP 풋살경기
- ▷ 매월 월, 수, 금, 토요일 : 상인동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 진행.

*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만평주민도서관 (2010.3.1~2010.6.30)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후원자〉

강구원 강용기 강정우 곽다은 곽종문 구본민 구소라 김건한 김경녀 김광미 김규진
 김규학 김민철 김병덕 김성일 김수정 김승기 김애화 김영은 김영진 김윤정 김은경
 김정아 김정호 김종태 김진국 김찬구 김철민 김현애 김현정 김현지 김형섭 김형조
 김혜민 노교현 노진영 박미숙 박상우 박수진 박애선 박일숙 박정규 배지영 배혜정
 백우열 서상인 서상화 성동건 손영자 송광웅 송지영 양선현 여상희 오메삭 원영숙
 원종구 유정무 유태영 윤대기 윤석권 윤종고 은현숙 이경란 이광진 이권성 이권우
 이대명 이동인 이동훈 이미경 이상미 이상윤 이세아 이수연 이정배 이정화 이진경
 이진우 이찬상 이현정 장대환 장민철 장희영 전미경 전인규 전정옥 정미영 정수영
 정연미 정용태 정정원 정현오 정효미 조경락 조상호 조은정 조준우 조현숙 조현정
 주성민 지민겸 지숙희 최경화 최기훈 최명순 최순자 최우영 최은경 최은지 추연재
 태진철 하민희 함석호 허영길 허영철 현대숙 홍예숙 홍은숙 홍창영 홍혜옥 황경진
 황선연 김영숙 A 김영숙 B 665-6688 대리운전 대구은행북비산지점 수석교회
 (주)혜성광학 동남노회 지산시찰(주은교회) 동남노회 고산시찰(심터교회)

〈이사회비〉

김 선 김영달 김영대 노경숙 신경목 우호성 윤승걸 윤 영 이경재 이상동

〈물품후원〉 후원명 : 음료

〈만평주민도서관〉

박애선 윤영희 전정옥 조경래
 책&학용품 후원 : 뇌교육 손소희 우명희 이재욱 정영조 최순자 하민희 홍창영

이 외 대리운전 이용과 후원의 밤 행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47,539,598	합 계		47,539,598
회비 수입	일반회비	594,000	사무비	인건비	10,532,270
	cms회비	6,850,000		운영비	5,620,180
	특별회비	12,075,420		업무추진비	1,717,960
	소계	19,519,420		소계	17,870,410
보조금 수입	자본보조금(결연사업)	9,602,136	사업비	후원홍보 사업	1,300,100
	기타보조금	700,000		조직연대 사업	1,249,249
	소계	10,302,136		교육훈련 사업	683,000
사업비	만평주민도서관	800,314		프로그램수행	700,000
	후원의 밤	13,681,780		자원봉사 사업	84,500
	소계	14,482,094		만평주민도서관	568,760
전입금	다른 회계 전입금	900,000	결연사업	7,946,840	
	소계	900,000	수익사업-후원의 밤	5,696,000	
이월금	2010년 2월 이월금	2,175,148	소계	18,228,449	
	소계	2,175,148	전출금	북한이주민지원센터	5,346,920
잡수입	예금이자	800		대구쪽방상담소	2,700,000
	기타 잡수익	160,000		만평주민도서관	-
소계		160,800	소계	8,046,920	
			잡지출	잡지출	20,000
			잔액		3,373,819

* 고맙습니다

대구쪽방상담소 (2010.3.1~2010.6.30)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듣든한 후원자>

구봉주 구선화 권우현 권충근 김기환 김동현 김미숙 김미정 김봉환 김상금 김상현 김성팔
 김수경 김성호 김시환 김영자 김영희 김유성 김인수 김일회 김삼숙 김종훈 김지연
 김진국 김천호 김학수 김현숙 김희준 남길식 남홍진 류현지 박귀자 박명숙 박선배
 박소연 박소현 박연경 박지수 박현수 박홍배 박희웅 서병철 서재희 송영규 송정옥 신상욱
 신은정 양정희 엄희자 오메삭 오진미 우승봉 원동건 윤지례 이국로 이경미 이경희 이관태
 이동욱 이명숙 이상록 이 수 이수남 이승미 이승민 이시온 이신영 이애자 이은경 이은애
 이임희 이재심 이종돈 이주화 이준호 이지현 이창현 이태수 임경범 임동훈 임해진 전미경
 전인규 정광옥 정대식 정명숙 정석찬 정재훈 정희영 조선국 진효림 천병우 천윤중 최규영
 M병원 대구도시가스 대구은행 백년가약 한국전력공사

<물품후원>

- 평화산업(쌀20Kg×51포)
- 서구청주민생활지원과(하계상의 150벌)
- 이자경(구제의류 50점, 전기장판 1개)
- 박애선(반찬 10kg)
- 한순남(구제의류 60벌, 구제신발 15켤레)
- 강희민(구제의류 30점)
- 김대수(상의 2벌)
- 강구배(과일)
- 서구청주민생활지원과(응급구호세트 10박스, 일시구호세트 20박스)
- 참미식품 김정훈대표(쌀 8포, 육개장8박스, 3분하이스 3박스)
- 칼라푸드(주 5일 밀반찬 지원, 300만원 상당)
- 대봉교회(반찬 1KG 100봉지, 반찬40세트)
- 범물동박경희(구제의류 50벌, 치약비누등30점)
- 전정옥(냉장고, 주방 세트 등)
- 새대구클럽 쌀25포(100만원 상당)
- 김원형(급식물품-비닐팩, 비닐장갑, 지퍼팩-2박스)
- 미륵불사(쌀20Kg×1포, 국수5kg×1포)
- 추지연(의류 15벌)
- 정규완(청소기)

<쪽방에 도움주시는 약국>

경명약국 경북약국 경성약국 광산약국 광장약국 극동약국 대보약국 대일약국 대지약국
 동아약국 동재약국 문화약국 바른약국 백상약국 보건약국 보림약국 보성약국 수정약국
 신성약국 안일약국 영남약국 우성약국 유명약국 유창약국 유한약국 이화약국 장수약국
 제일약국 잼마약국 조인약국 천일약국 청심약국 추계약국 김스약국 평리약국 하림약국
 한독약국 해인약국 건강당약국 굿모닝약국 뉴서대구약국 메디팜서진약국 북비산약국
 새달성약국 새세명약국 새솔밭약국 새현대약국 서약국 신약국 신평리약국
 온누리미소약국 장춘당약국 청암당약국 최약국한사랑약국

<쪽방진료소와 협력하는 병원>

M병원 김효정치과 약속약국 영남이비인후과 한영안과 한건호비뇨기과

수 입			지 출		
합 계		209,029,707	합 계		209,029,707
사업 수입	명절특식사업	0	사무비	인건비	47,770,090
	기획사업	0		운영비	12,480,990
	공동부업사업	2,416,300		업무추진비	2,960,370
	프로그램신청사업	0		소 계	63,211,450
	경과적일자리창출	3,240,320		직업재활사업	2,416,300
	취업성공패키지	1,000,000	생계지원사업	11,280,000	
소계		5,656,620	사업비	기타사업	600,000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167,700,000		프로그램신청사업	3,858,440
	후원금수입	12,003,601		화랑자활사업	1,786,140
	소계	173,356,620		취업성공패키지	1,000,000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9,926,978		공중보건의 활동비	2,100,000
	예금이자수익			경과적일자리창출	3,240,320
잡수입	기타 잡수익	42,508		잡지출	2,610,000
	소계	42,508		소 계	28,891,200
전입금	법인전입금	2,700,000	잔 액		116,927,057
	소계	2,700,000			

* 고맙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10.3.1~2010.6.30)

<든든한 후원자>

강경점	강명숙	강상호	강정우	강지윤	강현숙	구봉주	권현익	권기태	권오현
권현익	김경림	김경민	김경호	김목유	김민경	김선왕	김성희	김순득	김순복
김승배	김연희	김영문	김영진	김원태	김은희	김종식	김종훈	김진석	김창현
김학수	김현미	김현애	박대근	박수선	박연경	박영란	박종무	박주이	박지은
박현정	서재희	송다혜	신경목	신미경	여은상	오메삭	오수경	유영학	유재영
윤명식	윤동수	윤명식	이강혁	이경미	이경연	이경희	이광운	이광호	이기도
이동원	이명환	이미영	이상록	이상윤	이선미	이은희	이준호	이창현	이태준
이필순	이혁수	이현중	이화정	임정숙	임호산	장미정	장민철	장연상	장진영
전종민	정미정	정상길	정지균	조대성	조은주	조재희	조현정	주은경	채민수
채영주	천영익	최경호	최규영	최선미	최세호	최은경	최인식	최진웅	최태성
최해수	최효정	표지수	표현경	한승엽	허지향	허진욱	현태숙	홍창영	황성은

ACT 광명정공 이마트영수증 후원 기독교장로회 달구벌교회 제일교회10여전도
영남대MF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저희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든든한 힘입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합 계			
227,136,618		227,136,618			
보조금	정착도우미	16,635,780	사무비	인건비	15,353,795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	7,000,000		운영비	11,484,680
	대구시민간경상보조금	3,000,000		업무추진비	11,129,900
	노동부민간협력	13,600,000		소계	37,968,375
	산은사랑나눔	9,600,000		정착도우미	19,740,280
	지역적응교육센터	70,000,000	공동모금회제안기획	9,307,700	
	연대사업	2,700,000	대구시민간경상보조금	3,000,000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	400,000	노동부민간협력	4,178,05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협력사업	9,000,000	산은사랑나눔	9,106,010	
	국가인권위원회	6,671,000	지역적응교육센터	45,375,225	
	조직화	2,000,00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협력사업	2,481,100	
	소계	140,606,780	연대사업	2,700,000	
후원금 수입	지정/행사후원	12,853,642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	400,000	
	일반후원금	3,801,814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	2,800,000	
	CMS	5,685,000	소계	99,088,365	
	소계	22,340,456	지정후원금	4,020,000	
전입금/ 잡수입	법인전입금	5,346,920	소계	4,020,000	
	예금이자	27,682	잡지출	13,094	
	기타잡수입	721,054	소계	13,094	
	소계	6,095,656	잔 액	86,046,784	
전월 이월금		58,093,726			

사랑을 나누주세요

처음의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당연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 주세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가득할 날을 꿈꾸며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 하나 '친.친.더.하.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하나 된 기쁨 나누기!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함께 먹고 싶고, 기쁨은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듯이,

나보다 너를, 너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멋진 일도 친구와 함께해주세요.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 정기 후원자가 되는 방법

ㄱ. 직접은행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법인)
대구은행	007-04-000442-7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대구쪽방상담소)
대구은행	038-05-002942-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은행	034-10-00427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주민도서관)

ㄴ. CM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053-356-0464)나 인터넷(www.vongsa.org)을 통하십시오.

■ 이마트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영수증 금액의 0.5%가 저희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마트에 배치 된 적립기에서 저희기관을 선택해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영수증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칠성점 : 2번	만촌점 : 164번	시지점 : 80번	성서점 : 135번
반야월점 : 92번	비산점 : 42번	달서점 : 71번	경산점 : 51번

■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쪽방거주인과 북한이주민에게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과 쌀, 라면, 옷 등의 생필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만평주민도서관을 짹 짹 채울 '책'과 '책장'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053-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1,500원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후원됩니다.